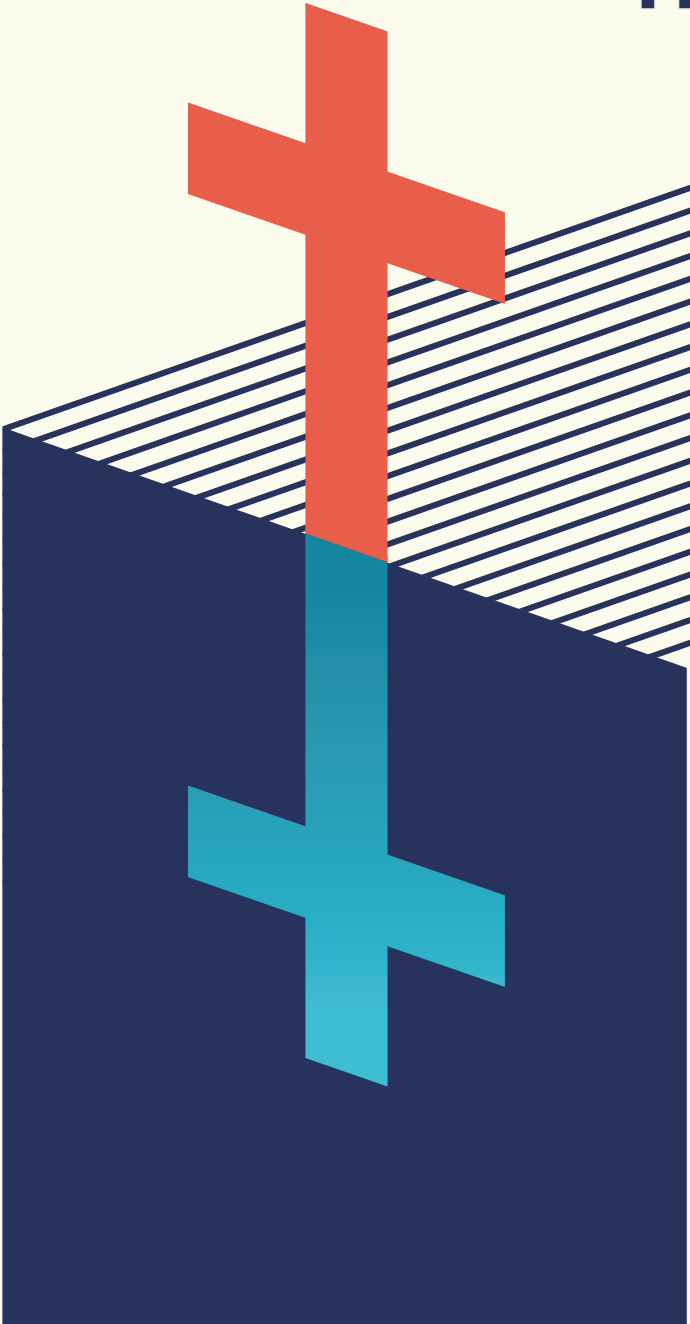


2023년
11월 26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1.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겨울 놀이는?
2. 나를 교회로 처음 인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찬양 - 우물가의 여인처럼

1.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2.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3.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후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 대표기도

아브라함의 믿음 (롬 4:16-25)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철학, 과학, 종교 등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새로운 한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하나님의 의인 이유는 땅에서 출발한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2023년을 지나는 우리에게 나의 의로 체험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2000년 전 내 존재 밖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내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례로 아브라함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내용과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

로마서 4: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등장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3-4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1)하나님 없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2)하늘까지 닿아보려고 했습니다. 땅의 문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둘째, 데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계시적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중간인 하란에 머물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데라는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 믿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는 우상에 매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셋째, 사라 이야기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창 11:30). 불임의 시대, 생명이 마른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땅의 문명이 광포한 시대에! 우상의 기운이 우주에 가득한 시대에! 생명이 말라가던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압축된 불임과 죽음과 우상의 역사를 깨고 생명과 창조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길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던 땅을 버려라! 그동안 인류가 디디고 서 있던 땅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마르고, 생산이 중단된 불임의 땅이었습니다.

고향을 버려라! 익숙한 삶의 자리, 자기 중심성이 숨쉬는 자리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버려라! 네 삶의 정체성, 네 존재의 디딤돌을 버리라는 요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떠납니다. 그러나 주변에도, 앞서간 사람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선배들이 없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모델로 삼을 사람이 없던 아브라함은 홀로 이 길을 선택합니다.

홀로 걷는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약속의 땅은 기근으로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싸움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을 의미하며 신적 섭리의 자리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후 역사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믿음의 길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브라함의 영적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 하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심정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마침내 창세기 2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이 송두리째 담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아들은 아브라함이 디디고 서 있었던 삶의 자리였고 자기 정체성이었고, 이기적 자아의 집약체였습니다. 하나님이나! 아들이나!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새겨진 모리아산!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곧 아들을 선택한 것인데,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들을 선택한 것 이상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과 축복은 아들 이삭과 3대 야곱과 4대 요셉으로 계승되고 그 믿음의 길은 1000년, 2000년 모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걷는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그대로 믿음의 길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점검 질문

1.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하였나요?(3가지)

2.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로마서 4:18-19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바랄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역시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은 내 생명입니다. 바치면 끝입니다. 안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바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
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인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그 부정의 상황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모든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이성과 판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의 생수를 빨아들임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 하나님께 접붙임 되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믿음의 여정이 어느 덧 성숙해지고 깊어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사 41:8).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믿음은 하나님께 접붙임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심정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2)우리가 접붙임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음은 시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익어갑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내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변질되고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살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시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은 몸을 살리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

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창조와 부활의 사건이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점검 질문

1. 아브라함이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3.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로마서 4:23-24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 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믿음의 원칙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쁜 것도 좋게 만드시는 새창조자 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분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죄가 씻겨졌고 그 분의 부활로 인간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마음이 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는 지금도 나에게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인간의 죄를 씻고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우주적이고도 신적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나의 은총이 되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피흘림의 사건이 내게 구원의 사건으로 체험되게 됩니다.

|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9년 좌절과 낙심으로 중국 선교지에서 쓰러집니다. 몸도 지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정말 혼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맙니다.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 때 친구 맥카디 선교사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편지가 그의 마음을 파고 듭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자신과 한 몸! 한 살! 한 뼈! 한 지체라는 사실이 확 깨달은 것입니다.

이후 이 선교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분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점검 질문

1.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선

김명선

E E/G#

내 게 로부 - 터눈 - 을들 - 어 주 를보 - 기시 - 작 할 - 때
 성 령 이나 - 를변 - 화시 - 켜 모 든두 - 려사 - 라 질 - 때

3 A A2 E/G#

주의일 을보 - 겠 네 - 내 작 은마 - 음돌 - 이키 - 사
 주의일 을보 - 겠 네 - 황 폐 한땅 - 한가 - 운데 - 서

6 C#m7 A A % E A/C#

하늘의 - 꿈꾸 - 게하 - 네 주님을볼때 - 모든 시선을 - 주님께드 - 리고 -
 주님마 - 음알 - 게되 - 리

11 B E F#m7 E/G# A

살아 계신하 - 나님 - 을느 - 낄때 - 내 삶 은주의 - 역사가 - 되고 -
 전능 하신하 - 나님 - 을느 - 낄때 - 세상 은주의 - 나라가 - 되고 -

17 A/C# B7 E/G# C#m7 A

하 나 - 님 이 일하기 시작 - 하 - - 네 -

D.C. al Fine

1. 나는 내 환경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 공동체 기도

1. 마라나타! 대림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옵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3. 모든 셀, 모든 부서 예배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NOTE.

NOTE.

